

전남도의회, 국립의대 개교 시기·석유화학 위기 대응 질타

민선8기 핵심 사업 도정질의
순천·목포대 ‘통합대학’ 확정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촉구

전남도의회가 ‘전남 국립의대’,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기업도시’ 등 전남도의 주요 핵심 현안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6일 열린 도정질의에서 민선8기 핵심 사업과 농업업인의 생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을 촉구했다.

신민호(민주·순천6) 전남도의원은 “전남 국립의대가 당초 2027년 개교 목표와 괴리가 발생했다”며 “의과대학 설립에 큰 진전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전남 국립의대 개교 시기를 2030년 3월로 전망한 데 따른 질문으로, 신 의원은 통합이 예정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대학’ 명칭도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 국립의대는 재정부가 확정된 국정과제로 교육부의 2030년 개교 전망은 정제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계획”이라며 “내년 2월, 두 대학의 통합승인이 나온 뒤 의대 정원을 배정받아 2027년도 개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도정질의에선 전남도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위기 대응 대책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강문성(민주·여수3) 의원은 “석유화학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며 전남도에 해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또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석화산업 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전남도의

준비 상황도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이어진 질의에선 민간투자 유치에 애를 먹고 있는 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성일(민주·해남1) 의원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솔라시도 개발사업의 공정률은 평균 33%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사업 부지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구성지구마저 공정률이 34.4%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조성된 건 태양광 단지과 골프장 뿐”이라며 “지역 내에선 민간사업자 배반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 투자사인 퍼힐스가 15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뒤 이행시각만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업에 대한 도정 질의도 쏟아졌다.

특히 신의준(민주·완도2) 의원은 전복 가격 하락에 따른 전남도의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어민들의 버팀목이었던 전복 양식이 흔들리고 있다”며 “과잉생산, 유통, 종자 등 많은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게 따르면 전복 가격은 2012년 4만8000원 수준에서 2020년 3만1000원대, 지난해에는 2만3000원대 까지 하락했다. 과잉생산이 가격 하락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는데도, 오히려 올해 전복 생산량은 전년보다 1455t 증가한 1만4254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전복 양식허가를 보면 34건 6100ha로 2014년과 비교하면 30만칸이 증가했다”며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는 정부와 전남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독감 무료 접종 문제 없도록...

16일 광주 북구보건소 접종실에서 직원이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22일) 날을 앞두고 관내 의료기관 백신 소진 시 추가 공급할 백신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올가을 광주 여행은 ‘투어버스’로 편하게 즐기세요”

광주시, 지역 대표축제·관광거점 연계해 확대 운영

광주시가 가을 관광시즌을 맞아 ‘지-페스타 광주’와 연계해 관광형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광주투어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 개편은 신규 노선 신설과 다인 패스권 도입으로 축제 접근성을 높이고 소규모 단체 관광객의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1일 열리는 ‘광산뮤직ON페스티벌’과 10월 16~19일 개최되는 ‘서창역새축제’ 기간에 맞춰 황룡진수공원과 서창역새축제장을 잇는 신규 노선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축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지역 대표 가을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의 이동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광주투어버스’는 스마트 호출형 교통체계(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를 적용한 관광형 버스로, 이용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하면 정류장까지 직

접 찾아가고 이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그동안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꼽혀온 주요 축제장과 관광지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요금체계도 달라진다. 최대 5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인 패스권을 새로 도입해 요금을 10% 할인한다. 기존 성인 기준 1회 1700원, 24시간 무제한 이용 3000원인 개인권에 더해 가족이나 친구 단위 소규모 단체 관광객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운영 구역은 광주송정역(KTX), 유스퀘어버스 터미널, 농성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김대중컨벤션센터, 시청, 광주비엔날레, 양림오거리, 사직전망대, 서창감성조망대, 기아챔피언스필드, 대인시장, 황룡진수공원, 서창역새축제장 등 14곳이다.

이 노선망을 통해 이용객들은 시청 일원에서 열리는 빛고를 책마당(10월 11~12일), 광주김치축제(10월 31일~11월 2일)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의 총장축제(10월 15~19일), 총장라운페스타(10월 15~18일), 버스킹월드컵(10월 15~19일), 동명커피산책(11월 8일) 등 가을 대표 행사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광주디지털비엔날레(8월 30일~11월 2일)와도 연계돼 관광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투어버스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된다. 광주시는 지역 대표 축제와 관광지를 긴밀히 잇는 교통망을 마련해 관광객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보완하는 한편 소규모 단체관광 수요까지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투어버스가 지역 축제와 행사장을 잇는 교통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광주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끝나지 않은 광주양궁축제...23일 장애인선수권 개막

47개국 443명 참가

광주가 오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세계 장애인 양궁 선수들을 맞이한다.

16일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예·본선 경기장인 광주국제양궁장과 결승전 무대인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47개국 443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점검에는 서용규 광주시의회 제1부의장, 한상득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이순욱 부회장,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 등 14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선수단과 관람객의 이동 동선, 휠체어 접근성, 관람석 배치, 화장실·휴게 공간, 비상 대피 동선 등을 직접 확인하며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특장버스에 직접 탑승해 휠체어 승·하차 과정을 체험하면서, 선수단 이동

시 자원봉사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장애인 전용 화장실 확충, 장비 보관 공간 확보, 우선 시 보행 안전 대책 마련 등이 보완 과제로 지적됐다.

조직위는 이미 기습 폭우에도 경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잔디보호 매트 설치 중이며, 경기장 내 편의성과 안전 체계를 강화해 참가 선수와 관람객 모두가 불편 없이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연 조직위 사무처장은 “실제 이용 동선을 따라가며 꼼꼼히 점검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끝까지 준비를 다해 국제대회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는 22일부터 공식 연습에 돌입한다. 23일부터 26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예·본선 경기가 열리고, 27일과 28일에는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결승전이 치러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이상저온 피해 농가 복구비 지원

5600농가에 133억원 투입

전남도가 16일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복구비 13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구 지원 대상은 과수류 5300농가(3500ha), 봄 배추 300농가(240ha)로, 올 봄 기온 하락으로 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다.

전남도는 피해 농가의 빠른 회복을 위해 시·군에 복구비를 교부하고 농가별 보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면적 50ha 미만으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무안·신안군은 전남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다. 농약대는 1ha당 과수류

는 300만원, 채소류는 250만원을 지원하고, 피해율이 50% 이상 농가에는 183만원(4인가구)의 생계비와 농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감면 및 2년 상환 연기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이상저온으로 농가 피해가 컸던 만큼, 복구비 지원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재해를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www.jindoarirangmall.com



우리가족
안심먹거리

Fresh food
신선한식품

진도 아리랑몰

진도아리랑몰

을 검색하세요